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My Strength, My Song, and My Salvation”  
(이사야 Isaiah 12:1-6, 스바냐 Zephaniah 3:17)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눈으로 주님 탄생의 순간을 느껴 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이사야와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2 장에는 ‘감사 찬송’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6 절의 짧은 찬양시 가운데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지요.

Today is the third Sunday of Advent, a time of expectant waiting and preparation for both the celebration of the Nativity of Jesus at Christmas and the return of Jesus at the Second Coming.

For the past two Sundays, we meditated on the birth of the Lord Jesus through the eyes of Mary and Joseph. Today we will study the book of Isaiah and Zephaniah according to the Church Year. Isaiah 12 begins with a subtitle 'Songs of Praise'. In this short 6 verse praise song, the following phrase is repeated twice.

You **will** say in that day: “I **will** give thanks to you, O Lord.” (Isaiah 12:1, 4 ESV)

감사의 노래는 ‘그 날이 오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앞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에 전해지지 않았지만,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날’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이사야서 1:4-5)

This song points to a future time by saying 'in that day'. Thanksgiving takes place in advance when we don't know a thing yet. We give thanks first even before we see, hear, or touch anything. Well, when is 'that day' the verse is referring to? The book of Isaiah begins with God's rebuke on the Israelites.

Woe to the sinful nation, a people whose guilt is great. They have forsaken the Lord;  
Why should you be beaten anymore? Why do you persist in rebellion? (Isaiah 1:4-5)

11 장까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가 계속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에 소망의 불씨를 남겨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날’에 대한 불꽃 같은 희망이지요.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남은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이사야서 11:11)

자유도, 나라도 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해 준 힘이 바로 ‘그 날이 오면’ 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포로신세 이지만, 반드시 주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 날이 오면, 앗수르의 손아귀에서 ‘제 2 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The message of judgement and anger of God continues until chapter 11 of the book. However, our God is the One who does not break a bruised reed, nor snuff out a smoldering wick. He is the One who leaves a seed of hope in the midst of despair, and ‘that day’ is such a day of hope.

In that day the Lord will reach out his hand a second time to reclaim the surviving remnant of his people (Isaiah 11:11)

The promise of that day was the only hope and strength with which the Israelites could survive during the period when they were scattered and living without freedom. Although they were the captives, they had a faith and hope for the day of salvation, a 'second Exodus' from the power of the Assyrians and the Babylonians.

저는 1980 년대에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시위로 캠퍼스는 늘 최루탄 연기로 덮이기 일쑤였지요.

시위대 앞에 서지는 않았지만, 당시 학생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I was a college student in Korea in the 1980s. At that time, the campus used to be filled with the tear gas everyday due to the ongoing demonstration for democracy. Although I was not involved in the demonstration, I still remember the song the students used to sing a lot on campus. The lyric of the song goes like this:

Won't be one night's dream after all

Pain and tears filled in the bright eyes of my brothers

Dreaming the waves of justice filled in the ocean of peace

When the day comes, when the day comes

All the faces of beloved brothers and painful memories

Even the spring time of my life won't be mere dream of night,

When the day comes, when the day comes

아마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도 이 ‘그 날이 오면’을 학수고대 했을 것입니다.  
채찍에 앙상한 등을 내주고, 창 끝에 내몰려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고된 하루.  
그 하루를 견딜 수 있는, 또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이었지요.  
그 날이 오면, 어쩌면 아직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니,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사야서 12:1b)

Surely, the captured Israelites were looking forward to the coming of the day. This hope enabled them to persevere another day of hard labor and physical abuse and to give thanks to God at the end of each day. 'In that day' can be also our song as we are waiting for the return of Jesus Christ.

I will praise you, Lord. Although you were angry with me, your anger has turned away and you have comforted me. (Isaiah 12:1)

지금 막 감당하기 힘들었던 포로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매 주일 힘든 세상살이를 마치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진 생채기들을 겸손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 놓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v.2a) 이런 멋진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제목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2 장 감사찬송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Just like the Israelites who returned home from the hardship of the captivity, we come to the Lord's sanctuary after a week's hard work and toil and humbly lay down all our pain and hurt at the Cross of Jesus. When we hold onto the healing and restoration of God, who is the Healer, we can confess to Him, 'Surely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not be afraid.' (Isaiah 12:2a)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서 12:2b)

The title of today's sermon is "My Strength, My Song, and My Salvation". This is the essence of the Song of Praises in Isaiah 12.

The Lord, the Lord himself, is my strength and my song; he has become my salvation.” (Isaiah 12:2)

오늘 다른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고백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능력,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지요.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사람 콤플렉스’ **good boy syndrome** 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거절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금새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I hope that today with nothing complicated that you will be able to sincerely make the following confessions. First, it is such a precious confession that God is my strength. In the course of our lives, there definitely comes a moment when we become overburdened. We are required to handle far more tasks than we can actually do or have time for. The so-called “good boy syndrome” makes things more difficult for anxiety arises if we reject someone’s request, we too can be rejected in return by that person rapidly snowballs the amount of tasks that we must handle.

현대사회는 집요하게 능력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한대로 잡아 당길 수 있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리면, 반드시 부러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의 힘을 무한대로 늘리려고 아등바등 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 번 큰 목소리로 외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스바냐서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Modern society relentlessly tests the limit of our capabilities. Neither you nor I am an elastic band which can be stretched infinitely. Being continuously overloaded, we will surely snap. Today’s scripture presents a completely different answer. It tells us not to struggle to expand our power infinitely. It demands a change of perspectives. It tells us to change the subject of our life. Let’s shout loudly, “God is my strength!” We confessed this in faith, but what’s the real meaning of “God is my strength”?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스바냐서 3:17a)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the **Mighty Warrior** who saves. (Zephaniah 3:17a)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은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 한 복판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의 원어는 바로 **‘전쟁의 용사’** 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 (신명기 4:34) 로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지요.  
출애굽기 15 장 ‘모세의 노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 confession that God is our strength is believing in the following: First, it is “Immanuel Faith,” believing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midst of our daily lives. It is inviting God to the center of our lives. “The mighty One who will save” is praise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mighty One” is “the warrior.” This is the God who gave a victory in a battle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Deuteronomy 4:34).” “The Song of Moses” in Exodus Chapter 15 also praises God who became his strength.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출애굽기 15:3, 6b)

The Lord is a warrior; the Lord is his name. (Exodus 15:3)  
Your right hand, Lord, shattered the enemy. (Exodus 15:6b)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긴 삶이지요.  
지난 주 중에 12 분의 권사후보들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Our lives are spiritual battlefields. Every day and at every moment, we are besieged by temptations from Satan who is trying to chop us down.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Some people believe their own strength as God, whereas others believe in “God” as their strength. A real confession of a Christian is “God is my strength,” meaning a life that’s been completely laid down before God. Last week, as I was interviewing 12 candidates for elders, I experienced amazing grace. Let me share one deacon’s dear testimony.

“2004 년 아내가 다니던 와싱턴한인교회를 자의없음, 타의전적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설교는 좋은 말씀으로만 들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술담배를 해서 주일에 교회에 올 때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왠지 담배냄새가 풀풀 날 것 같고, 전날 마신 술 냄새가 아직도 내 얼굴을 달구는지...  
교회에 안 나가면 이런 불편한 마음도 없이 편할 텐데...  
그러던 어느 주일 조영진 감독님의 설교가 저를 집중케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내 몸을 물에 담그는 것과 같다고...  
처음에는 [삶이 바뀌지 않아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고,  
무릎까지 물이 차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 몸을 적시면 성령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제 마음을 쿵 치는 뜨거움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성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련회 기간 중에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담배갑을 통째로 던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냄새도 역겹고, 피우고 싶은 생각이 뚝 끊겨 버린 것입니다.  
눈치 보며, 담배 피우던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었겠지요.  
죄 많고 온전치 않은 저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저에게 너무 과분한 이 권사직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In 2004, I started to attend KUMC, pressured by my wife, rather half-heartedly. Although the sermons sounded like good moral teachings, I had no faith in God or Jesus. At that time, I smoked and drank. For this reason, I was uncomfortable every time I came to church. I worried if my body still smelled like cigarette or the alcohol I had drunk the night before still was burning my face. I thought I wouldn't have to worry about all this if I didn't have to go to church. One such Sunday, Rev. Cho's sermon got my attention. He said that life in faith is like submerging our bodies in water. Although we don't see any transformation in our lives in the beginning, as we keep coming to the worship service, the water will rise to our knees, when we just have to kneel down and pray. When the water rises to submerge our entire body, we will be able to live a life full of the Holy Spirit. Something hot touched my heart, and with that grateful heart I participated in the church retreat. Nonetheless, I kept smoking in the balcony during the retreat. On my way home upon finishing the training, I chucked the whole pack of cigarettes in a trash bin. Suddenly, they smelled revolting and my appetite for smoking completely left me. I am sure my smoking in secret was such a ridiculous sight to God. I am so grateful that God called me His son, a sinner who is not righteous. I pray that God will help me faithfully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of an elder although I consider myself underserving.

내 힘으로는 도저히 꿀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 힘이 될 때 가능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인간힘 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힘이 되게 하십시오.

We can be freed from something that we can't quit on our own volition when God is our strength. Let's not try to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but rely on God to be our strength.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시편 118:14, 공동번역)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he has become my salvation. (Psalm 118:14)

두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멋진 고백입니다.  
평소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들어보면,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슬픔과 이별,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노래에 끌려서, 가사대로 살게 됩니다.  
까닭모를 슬픔이 밀려오고, 우울한 마음이 넘실댁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자나깨나 찬송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차고 넘칩니다.

The second confession is a wonderful one that 'God is my song'. What you usually sing reflects who you are. A worldly song is full of sadness, farewell, scars and pain.

If you continue listening to a song, you will be dragged into the song without realizing it and you will be living like the lyrics of the song. You will get hit with sadness and with random waves of melancholy for no reason. However, what would happen if I sing a hymn all day long? Joy wells up. Heavenly peace and comfort overflow.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 것이다. (이사야서 12:3)  
With joy you will draw water from the wells of salvation. (Isaiah 12: 3)

오늘 감사 찬양시 중에 우물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펑펑한 광야 길을 걷는 중에 '브엘' 우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요.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물을 주마." 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합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민수기 21:16-17)  
세상 우물은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해야만 팔 수 있습니다.  
천국 우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저 길어 마시는 것입니다.  
세상 샘물은 빗물이 마르면, 샘물도 바짝 말라 버립니다.  
천국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약속 위에 솟구쳐 오르는 샘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길 축복해 드립니다.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image of the well was used during today's praise song.  
The Israelites continued on to Beer, the well where the Lord said to Moses, "Gather the people together and I will give them water." Then Israel sang this song: "Spring up, O well! Sing about it" (Numbers 21: 16-17) Worldly wells would be dried up with prolonged drought. Heavenly wells are never dry with springs rising above the promise of the faithful God. I bless you to sing our eternal praise until you stand before God.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출애굽기 15:2a)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defense; he has become my salvation.... (Exodus 15: 2a)

세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노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 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벅찬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메시지 성경은 구원이 되신 하나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The third confession is about salvation: 'God is my salvation'.  
Do you feel unfathomable joy and peace in the deepest part of your heart when you call 'Heavenly Father', the name of God who is your strength and song? Do you have an overwhelming "thrill of salvation" every time you come to the place of worship?  
The message that the Bible is pointing to the savior God.

God - yes God! - is my strength and song, **best of all, my salvation!** (Isaiah 12:2b, the Message)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4부 청년부를 섬기시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995년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일년간 매일 1-2시간씩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청년부 수련회로 기도원에 갔을 때입니다.

액자 속에 적혀 있던 성경구절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제 눈 앞에 다가 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순간 갑자기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Only God is our salvation! It is the testimony of the deacon who serves in the 4th service for the young generation. "I have attended this church since 1995. I have read the Bible for 1-2 hours every day for one year before I personally accepted Him. Looking back, it is truly God's grace. It was when I went to a prayer house for a youth retreat. The Bible scripture in the picture frame came to life, letter-by-letter, in front of me. "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At that moment, my childhood memories hit me.

단짝 친구들이 있었는데, 늘 약국 집 뒷방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모두 교회 수양회에 가고 나만 혼자 남았지요.

우연히 친구들의 수양회 책자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기도제목이 적혀 있더라구요.

사랑하는 친구, 000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제 이름을 적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잊고 살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진 날,

오래전 그 친구들의 기도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I had few close friends, and we always gathered and had fun at a room located in the back of a pharmacy. Every summer I was left alone as all my other friends went to a church retreat. I happened to find a booklet of my friends' retreat, and saw a prayer title on it: I pray for my beloved friend, let my friend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My friends wrote my name and prayed for me. For a long time, this had been forgotten; on the day that the word 'new creation' stroke me, I felt so thankful for my friends' prayers."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소녀들의 기도를 끝끝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노래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지요.

Our God, He is a wonderful God.

He answered to those young girls' prayers.

"God is my strength, song, salvation"

When we sing a praise song of thanks, God looks at us and sings a song of joy.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서 3:17b)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but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Zephaniah 3: 17b)

말씀 속에 기쁨을 참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 추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개역성경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번역했지만, 새번역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늘 기뻐 반겨 맞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광야같은 세상, 거친 인생 들판을 걸을 때 새 힘으로 새 노래와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Do you see, from the Scripture, God who is dancing out of joy? The previous translation of this verse says, "He loves you silently," but the new translation is closer to the original.  
If you confess, “You are my strength, my song, and my salvation”, God is always pleased to welcome you. In addition, he always renews you and me with His great love.  
When you walk in wilderness, you would be rescued with a new song and a new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이사야서 12:2)

Surely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not be afraid.  
The Lord, the Lord himself, is my strength and my defense; he has become my salvation. (Isaiah 12:2)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I pray for you to live a blessed week in the Lord.